

第22次 圖書館·情報學 學術세미나 第3 主題

大學圖書館 藏書評價 方法論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한명환·정 명·김학면·고경수

□ 목 차 □

1. 서 론
2. 정서평가 방법론
 2. 1 장서평가의 선행연구
 2. 2 권장도서목록 혹은 대조리스트에 의한 평가
 2. 3 대출기록분석에 의한 장서평가
 2. 4 장서평가의 기타 방법론
 2. 4. 1 장서의 크기(장서량)에 의한 평가
 2. 4. 2 이용자 요구조사 및 서비스체계에 대한 평가
3. 우리학교 도서관의 장서평가: 대출기록분석을 중심으로
4. 결 론

1. 서 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은 그동안 양적인 증가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질적인 면은 거의 도외시하여 왔다. 대학설치기준령(영 제21조 도서관등)에도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중 많은 수의 도서와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로 정하고 있어 각 대학은 기준량 확보에만 급급해 왔으며 각종 공식통계의 보고에도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가 만을 가리고 있으나 이 기준은 학습에 필요한 장서량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

고 있지 않으며 최소확보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대학도서관의 정보제공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현대사회는 사회 및 학문의 급진적인 발전에 따라 학문분야가 세분화되고, 생성되는 정보의 양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에 할당되는 예산은 현상유지이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장서의 양적증가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60년대부터 계속된 서구에서의 장서평가에 대한 연구는 종래의 개념인 많은 양의 도서는 질적인 충족을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뒤집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양의 장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즉 도서소장을 위한 공간 마련,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부담을 들어 적절한 장서를 유지하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인 평가의 결론은 장서의 일부가 이용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장서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라인(Line)은 장서평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적어도 대학도서관들은 랭가나단의 다섯가지 법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오히려 랭가나단의 원칙에 반대가 되는 다섯가지 법칙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① 책은 수집되기 위해 존재한다.
- ② 이용자중 일부에게 원하는 책을 제공한다.
- ③ 책중 일부는 이용이 된다.
- ④ 이용자의 시간을 낭비하라.
- ⑤ 도서관은 증대하는 무덤이다.

위의 다섯가지 법칙은 실제로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으며 장서평가 및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해야할 바를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즉 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는 현시스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수집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도서관장서의 운용이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지속적인 일련의 과정속에 수행되어야 한다.

2. 장서평가 방법론

장서평가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용되지 않는 도서의 원인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서정책의 수립 즉 “자료선택정책수행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입수된 자료의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자료선택정책에 반영하므로써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존 장서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적정의 장서수준을 유지하는데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평가를 바탕으로 폐기정책을 수립하여 보존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절약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장서에 대한 평가는 60년대 장서소장공간부족의 해소를 위해 시작되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장서평가에 대한 주요한 연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대학도서관에 적용된 국내외 예를 중심으로 장서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¹⁾ 여러가지 제약은 있으나 우리학교도서관 대출기록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1 장서평가의 제반연구

장서평가는 20세기초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주로 책의 보존공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²⁾ 본장서에서 제2의 보존장소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이용빈도가 낮은 도서와 정기간행물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① 1902년 하바드대학 학장이었던 엘리어트는 고어홀장서 367,000책중 1년동안 63,673책만이 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많은 양의 장서가 이용되지 않거나 혹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추론하고 서고는 5년-10년마다 조사되어야하며 전혀 대출되지 않은 책들은 다른 곳에 밀집된 방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
- 1) 대출통계를 내는데 따르는 문제(대부분을 등록번호와 함께 바코드화) 즉 소장도서에 대한 DB구축없이 대출업무를 전산화한데 따른 서지정보 확보의 어려움등
 - 2) 본장서 또는 본서고라고도 함.

② 1951년 미들즈워트는 시카고대학에서 제2보존장소로 옮길 책의 결정을 위해 도서이용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도서이용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구입 후 첫 5년동안의 이용율과 5년 이후의 이용율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③ 1969년 화슬러와 사이먼은 장서의 계속적 누적으로 인한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밀집보존 제안 뿐만 아니라 서가목록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책자체의 특성과 과거 대출기록을 이용하여 어떤 변수가 장래에 이용될 도서와 이용되지 않을 도서를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변수인가를 밝혔다. 그들은 장래 이용을 예측하는 변수로 출판년, 입수년, 언어등의 책 자체 특성보다는 과거이용기록이 가장 타당하고 유일한 장래이용의 예측요소(과거의 이용이 현재의 이용에 대한 훌륭한 지표이며 현재의 이용이 미래의 이용에 대한 우수한 지표가 됨)임을 발견하였다. 1968년 모오스의 MIT폐기기준에서도 보존할 책에 대한 결정요소로 과거이용기준을 주장하였다.

④ 1962년 실버는 서가상의 책수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분계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MIT과학도서관에서 데이터를 모아 변수인 마지막 대출된 이래의 서가대기 기간과 다른 여러 결정기준에 대한 표를 만들었다. 결론은 폐기정책은 마지막 대출된 이래의 서가대기기간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이런 기준은 폐기 운영에 있어 별도의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선택된 변수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주제 그룹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또한 폐기 정책은 서가 공간의 필요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⑤ 1964년 트루스웰은 도서의 마지막 대출일자는 그 도서의 이용빈도와 관련있다고 말하고 이 마지막 대출일을 적용하여 도서의 장래 이용율을 예측하였다. 노스웨스턴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적용된결과 현 장서의 25%가 현행 대출의 99%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동대학 리어링도서관은 현 장서의 40%가 현행 대출의 99%를 만족시킨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 발견은 이용조사의 필요성과 장서의 재평가를 위한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⑥ 1972년 맥 그라스는 대학교장서에서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이용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책들이 적합하지 않은 책들보다 더 빈번이 도서관내에서 이용될 것이고, 도서관내에서 이용되면 집에서 이용을 위해 더 많이 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하였으며 사우스웨스턴 루이지애나 대학교를 대상으로한 분석 결과 교과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는 단지 8.3%만이 대출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맥 그라스의 결론을 더욱 확고히 해 주었다. 즉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가 그렇지 않은 자료에 비해 더 많이 대출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근년에는 대출업무가 자동화되어 망라적인 자료분석을 통한 자료분석이 가능해져 장서평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1979년 수행된 피츠버그대학교의 힐먼도서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장기간 동안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기초로한 대출패턴분석에 대한 완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86개월동안의 망라적인 대출자료분석결과 장서중 1/2은 이 기간동안 전혀 대출되지 않았으며 대출의 20%는 장서의 2%로 충당되었으며 대출의 40%는 장서의 6%로 충당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80/20규칙(1969년 Fairthorn의 연구에서 이용의 약 60%는 단지 10%의 장서만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이용의 80%는 장서의 약 20%로 충당될 수 있다. 즉 소수의 자료가 전체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며, 대다수의 자료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는 몇가지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간을 위한 제2보존장소 또는 밀집서가의 필요성, 둘째는 신간도서의 이용빈도가 높으며 이용되었던 도서의 이용될 확률이 높다는 점, 셋째는 교과과정에 적합한 도서의 이용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 넷째 총장서의 일부가 이용의 대부분을 만족시키며 대부분의 자료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2 권장도서목록 혹은 대조리스트에 의한 평가

³⁾ 권장도서목록을 이용한 장서평가는 평가에 사용될 기준이 서지류이며 해당도서

3) 일부학자들은 이를 표준서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BLC(book for Collage Libraries) 등은 표준서지보다는 권장도서목록 또는 필독도서목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임.

관이 서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을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도서관이 소장하여야할 추천도서목록으로 Books for College Libraries(일명 BCL)가 있어 BCL과 기존 장서를 대조하므로써 '장서구성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대조할 만한 권위있는 서평지나 권장도서목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의 서양서의 비중이 높으므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외에 권장도서목록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The Cambridge Bibliography of English Literature, The Handbook of Latin American Studies가 있다.

4) 전남대학교의 사회학, 정치학 장서(서양서 대상)의 BCL대조결과 약 17%를 소장하고 있으며 교수에게 추천을 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한 대조에서는 정치학은 65% 사회학은 45%정도의 소장율을 보이고 있어 BCL을 이용한 장서의 평가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권장도서목록을 이용할 경우 적합한 서지를 구비하여야 하나 적합한 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적절한 서지를 편성하여야 한다.

권장도서목록은 기본도서 또는 필독서의 소장유무는 판단할 수 있으나 시기의 적절성, 즉 계속 갱신되어 현재 출판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학문분야의 서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서지가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적절한 대조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평가를 위한 대조리스트는 교수의 추천도서리스트, 소속교수 연구원의 저작에 인용된 참고문헌리스트 강의계획서등에서 준비할 수 있다.⁵⁾ 해당분야 교수에게 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필독서(서양서) 100권씩을 추천받아 대조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조한 결과 정치학은 64% 사회학은 66%로 나타나 추천도서에 의한 장서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의계획서는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참고도서를 나열하고 있어 특정학과의 교과과정이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장서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서양서는 교수추천에 의해

4) 1984년 양병훈의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표본조사결과임.

5) 상계서

구입하고 있는 현실에 비취볼 때 도서관장서와 교과과정의 상호관련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강의계획서에 의한 평가의⁶⁾ 예를 살펴보면 정치학분야 70%, 사회학분야 61%로 나타나 장서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수의 저작물이나 학위논문(박사) 각종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대조리스트로 작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대조리스트는 일견 대학도서관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서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가 하는 문헌 제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본인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시도하였음) 타당성을 의심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로센버그(1966, 1967), 소우퍼(1972, 1976)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클 수록 그 정보원에 더욱 많이 인용된다는 “최소노력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힘들여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보다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므로써 평가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인이 우리학교를 대상으로한 조사(동-서양서 단행본 대상) 결과는 국내서는 408책의 참고문헌중 178책을 제공하여 43.6%의 제공율을 보였고 서양서는 387책의 참고문헌중 69책을 제공하여 17.8%의 제공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단행본인용 총 795책중 247책을 제공하여 31%의 제공율을 보였다. 조사결과 대학의 본격적인 연구인력으로 볼 수 있는 박사학위논문에 제공된 정보제공능력은 매우 빈약함을 보였다. 특히 서양서의 경우 그 비율이 무척 낮았는데 이는 우리학교의 서양서 소장비율이 낮은데도 이유가 있지만 신설대학으로서의 자료부족, 교육학특성상 과거자료의 인용이 많은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최소노력의 원칙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타교의 학과에서 수여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파포비치는 해당학교논문에 기초한 것에서는 88%의 망라도를 타교논문에 기초한 것에서는 84%의 망라도를 얻었다.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전체적인 망라도에 있어서는 해당학교 논문이나 타교 논문을 사용한 것이 큰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학위논문을 기초로한 대조도 해당도서관의 정보제공능력을 측정하

6) 상계서

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조리스트를 만드는 또다른 방법으로 본인은 국내서에 대하여 남본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를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특정주제를 출력한 후 우리학교소장 장서와 대조하여 문헌의 망라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는데 전반적인 평가방법으로는 부적당할지 모르나 해당대학의 특정학문분야에 대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서의 망라도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 서지탐색이 보편화되고 있어 장서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검색수행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 컴퓨터에 수록되는데 검색시도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여 실패율을 분석한다면 어느 분야의 장서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3 대출기록분석에 의한 장서평가

대출기록분석을 위시한 이용분석의 명시적 목표는 현재의 이용패턴으로부터 장서의 강 약점을 식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써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장서의 적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변경을 유도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자료를 식별하여 원거리의 저렴한 보관장소로 이관시키거나 폐기시키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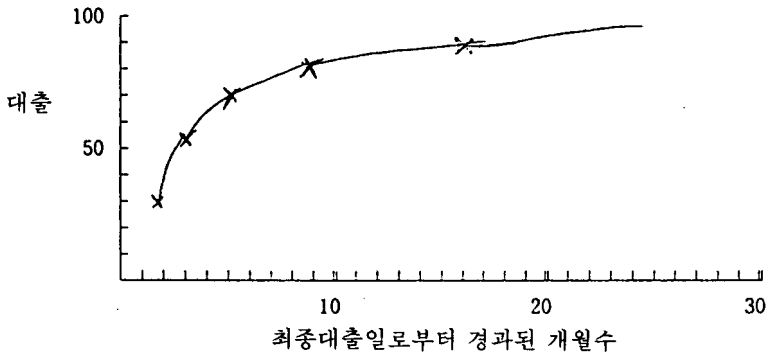
1969년 화스러와 사이몬은 과거의 이용이 현재의 이용에 대한 우수한 지표이며 현재의 이용은 미래의 이용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별로 이용되지 않는 자료들이 장서의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1967년 제인은 대출기록분석을 위해 장서로부터 표집하는 방법과 대출일로부터 표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장서로부터의 표집은 장서전체 혹은 선정된 주제의 집서로부터 무작위추출을 하는 것으로 보통 서가목록을 사용하여 표집한 후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대출기록을 적는다. 이 방법은 장서의 노화율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대출일로부터 표집하는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대출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되었던 자료에 대하여 출판후 경과된 시간을 조사하여 노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방법은 대체로 대출자료의 주제분포를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1964-69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에서 트루스웰은 장서의 몇%가 이용의 몇%를 차지하는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도서들이 이용의 특정비율을 차지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대출일자”를 조사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대출일자 방법은 현재 대출중인 날짜와 해당도서가 이전에 최종적으로 대출되었던 날짜만을 수집하여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조사하여 최종대출일 이후 경과된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도표. 최종대출일 방법의 결과



위 도표는 이용의 약 90%가 지난 14개월 이내에 최종대출되었음을 나타내고 만 약 14개월 이내에 대출된 적이 없는 도서를 모두 제거하면 서가에 남은 도서는 장차 대출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도서관이 소장할 핵심도서는 현 장서의 몇%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슬로우트는 핵심도서의 수준을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85-90%, 공공도서관의 연구자료는 95-99%, 초급대학은 90-95%, 대학도서관은 95-99%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도서의 수준을 99%로 했을 경우 핵심도서 수준까지의⁷⁾ 서가대기기간을

7) 서가대기기간 : 이용되거나 대출되지 않은 채 서가상에서 있는 시간

8) 임계일, 즉 최종대출일로부터의 기간으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1985년 구자춘(석사학위논문), 1984년 양병훈과 1979년 이은철(석사학위논문)에 의해 해당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한 제한적인 연구에서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은 물리학의 임계일은 41개월, 화학은 29개월로 나타났으며 전남대학교 사회학 정치학 집서의 경우 30년동안 1회이상 대출된 도서는 58%로 나타나 나머지 42%는 전혀 이용이 없는 불용도서로 볼 수 있다.

이은철은 “대학도서관 장서의 폐기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대출의 99%를 만족시키는 임계일로 정치학 24-31개월, 경제학 24-31개월, 법률학 23-24개월로 제시하였다. 표본도서관의 현재대출의 99%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건국대학교 도서관은 정치학분야 84.1% 경제학분야 72.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정치학분야 87.3% 경제학분야 76.7% 법률학 82.1% 였다.

조사결과 99%의 임계일을 넘긴 장서는 별도보관이나 폐기하여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과가 극히 저조할 때는 원인을 추적하여 적절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전남대학교 정치학 사회학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30년간의 기록분석에도 불구하고 1회도 대출되지 않은 도서가 42%로 나타났음을 발견하고 더욱이 신간이라고 볼 수 있는 1971년 이후의 자료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 ①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불신
- ② 도서관봉사의 적극성 결여와 전문사서의 부족
- ③ 양서의 높은 비율
- ④ 도서관이용지도의 결여
- ⑤ 대학교육방법상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점
- ⑥ 수서정책의 빈곤
- ⑦ 폐가식제도

8) 임계일 : 어느 일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즉 대학도서관의 핵심도서의 수준을 99%로 했을 경우 대출의 99%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가대기기간을 임계일이라고 함.

9) 전계서

를 들고 있다. 이중 ①②④⑤⑥은 도서이용이 극히 부진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도서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들어 대출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표본의 추출등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대출기록의 처리가 가능해져 대출되는 자료의 주제분포나 많이 이용되는 자료를 식별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장서의 노화율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화된 대출시스템을 대상으로한 연구로 피츠버그대학교의 힐먼도서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중 장서의 1/2은 전혀 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의 20%는 장서의 2%로 대출의 40%는 장서의 6%로 충당되었다.

본문 말미에 우리학교 도서관의 대출시스템에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출기록분석을 위해서는 몇가지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 먼저 대출기록은 관내열람의 결과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출과 관내열람과의 관련을 연구한 헨들과 버크랜드는 상관관계를 “대출이 거의 안되는 도서는 비교적 적게 관내열람되며 대출빈도가 많을 수록 관내열람빈도가 더욱 많아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출데이터가 가지는 또다른 제한으로 대출데이터는 단지 대출에 성공한 경우만을 나타낼 뿐 소장되어있지 않은 도서나 서가상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등 대출에 실패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대출된 자료가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이용되었나등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므로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에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2. 4 장서평가의 기타 방법론

앞에서 장서평가에 가장 많이 시도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장서평가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각각의 평가방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평가가 성공하려면 나타난 사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장서관리나 도서관봉사체계, 요구된 자료의 시의적절한 입수 및 정리, 이용자의 자료접근의 용이성등 실제 데이터로 나타

나지 않는 사항들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에서 기타 평가에 시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2. 4. 1 장서의 크기(장서량)에 의한 평가

¹⁰⁾장서의 크기는 장서평가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장서가 클 수록 이용자가 특정자료를 찾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교수 대학원생(석사과정, 박사과정) 학부학생등 이용 대상에 따라 자료요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서의 크기는 전공과정의 수, 크기 복잡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1986년 제정된 미국대학도서관협회기준은 85,000책(기본도서)+100책(전임교수당)+15책(학생당)+350책(학부의 전공 및 부전공과정당)+6,000책(석사과정당, 상위과정이 없는 경우) 또는 3,000책(석사과정당, 박사과정이 있는 경우)+25,000책(박사과정당)=장서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적 기준은 최저의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신간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서량만을 갖고 도서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라인(Line)이 제시한 랭가나단의 반5원칙중 “도서관은 증대하는 무덤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예산책정을 위한 각종 도서관통계를 보고할때도 대학설치기준령에만 근거하여 기준을 초과한다고해서 도서관구입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래된 도서관의 경우는 장서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폐기대책이나 별도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4. 2 이용자요구조사 및 서비스체계에 대한 평가

앞장에서 언급한 평가방법은 단지 자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있는 자료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실제 이용자가 장서를 이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또는 전반적인 이용자의 요구사항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특정도서를 이용하기를 원했으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유사

10) 장서의 크기는 장서량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집서나 장서등 총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장서량 보다는 장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봄.

한 도서를 참조했다면 자료제공에 반드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서 평가나 도서관서비스를 평가함에 있어 계량적 분석과 아울러 이용자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학부 학생, 대학원생, 교수 등 신분에 따른 요구사항의 파악이 되어야 하며 학부학생이라 하더라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요구가 다르며 대학원생도 석사과정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사이에는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조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요구조사는 도서관소장도서뿐 아니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목록검색 서가에 접근해서의 자료입수 가능성 2차자료 탐색 등은 이용자의 장서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찾는 자료의 90%를 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에게 이용될 확률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나빠질 수 있다. 자료의 90%를 소장하였고 이중 80%만이 목록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중 75%가 이용자가 찾을때 서가에 있었으며 이용자가 서가에서 자료를 발견하는데 90%의 성공율을 보였다면 실제 이용자가 도서를 이용할 확률은 $0.9 \times 0.8 \times 0.75 \times 0.9 = 0.486$ 즉 48.6%가 된다. 다른 예로 장서규모가 클 수록 특정도서가 소장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겠지만 반면 장서규모가 클수록 목록은 더욱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며 이용자는 탐색에서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평균적인 90%라는 소장률은 또한 도서관이용자 전체에 적용될 확률을 뜻하며 학부학생의 경우는 99%를 만족할 수 있지만 박사과정학생의 경우에는 60%만이 만족할 수도 있다. 평가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조사나 도서관서비스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도 함께 수집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학교 도서관의 장서평가: 대출기록분석을 중심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은 '92. 3월부터 대출업무를 등록번호를 바코드화하여 전산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어 대출관련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대출업무전산화이후 92. 3-93. 11 사이 약 22개월동안 대출된 도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대

출판관련기록은 컴퓨터에 수록된 히스토리파일을 이용하였으며 이파일을 전산실직원
의 프로그래밍지원을 받아 1회이상 대출되었던 도서, 2회이상 대출되었던 도서, 3
회이상 대출되었던 도서를 추출하였다. 22개월동안 3회이상 대출이라면 활발한 이
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4회이상의 별도의 데이터는 만들지 않았다.

〈표 2〉 전체장서현황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중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동양서 | 11,368 | 7,676 | 3,494 | 31,865 | 9,542 | 9,652 | 9,617 | 13,615 | 27,385 | 11,548 | 135,762 |
| 서양서 | 1,777 | 1,853 | 245 | 6,037 | 3,321 | 6,291 | 2,062 | 2,401 | 5,084 | 1,494 | 30,385 |
| 계 | 13,145 | 9,529 | 3,739 | 37,902 | 12,863 | 15,943 | 11,679 | 16,016 | 32,469 | 13,042 | 166,147 |

〈표 3〉 대출가능도서현황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중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동양서 | 8,378 | 6,917 | 3,103 | 22,794 | 7,732 | 7,258 | 6,764 | 10,035 | 22,762 | 8,460 | 104,203 |
| 서양서 | 865 | 1,369 | 185 | 5,150 | 2,659 | 5,279 | 1,643 | 1,877 | 4,358 | 1,185 | 24,570 |
| 계 | 9,243 | 8,286 | 3,288 | 27,944 | 10,391 | 12,529 | 8,407 | 11,912 | 27,120 | 9,645 | 128,773 |

우리학교도서관의 장서는 '93.11월말기준 총 166,147책이며 이중 동양서는 135,762책으로 전체장서의 81.7% 서양서가 30,385책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
어 서양서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이것은 우리학교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서양
서구입을 교수추천에 의하여 구입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출가능한도서 즉 전체장서에서 참고도서 학위논문 제본된 정기간행물을 제외
한 장서는 128,773책으로 이중 동양서는 104,203책(80.9%) 서양서는 24,570책(19.1%)으로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표 4〉 대출가능도서의 유별구성비율(단위%)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중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동양서 | 8.04 | 6.64 | 2.98 | 21.87 | 7.42 | 6.96 | 6.49 | 9.63 | 22.84 | 8.12 | 100 |
| 서양서 | 3.52 | 5.57 | 0.75 | 20.96 | 10.82 | 21.48 | 6.68 | 7.64 | 17.73 | 4.82 | 100 |
| 계 | 7.18 | 6.43 | 2.55 | 21.7 | 8.07 | 9.73 | 6.53 | 9.25 | 21.06 | 7.49 | 100 |

대출가능도서의 유별구성비율을 보면 동양서는 문학(22.84%) 사회과학(21.87%) 예술(9.63%) 역사(8.12%) 총류(8.04%) 어학(7.42%)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양서는 순수과학(21.48) 사회과학(20.96%) 문학(17.73%) 어학(10.82%) 예술(7.64%)순으로 밝혀졌다. 동양서는 순수과학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서양서는 높게 나타난것은 순수과학에 대한 국내서적의 출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 대출현황('92. 3~'93. 11)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동양서 | 4,580 | 15,346 | 2,345 | 47,880 | 11,076 | 17,126 | 4,695 | 20,307 | 49,487 | 13,117 | 185,961 |
| 서양서 | 72 | 360 | 16 | 1,885 | 811 | 1,742 | 37 | 662 | 288 | 164 | 6,037 |

〈표 6〉 전체장서(대출대상자료)의 대출빈도수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1회이상 | 1,866 | 4,845 | 1,235 | 13,713 | 4,011 | 5,272 | 1,965 | 6,609 | 13,786 | 4,008 | 57,310 |
| 2회이상 | 1,436 | 3,928 | 922 | 11,149 | 3,137 | 4,220 | 1,516 | 5,411 | 11,279 | 3,292 | 46,290 |
| 3회이상 | 1,067 | 2,955 | 683 | 8,562 | 2,468 | 3,142 | 1,196 | 4,217 | 8,847 | 2,557 | 35,694 |

〈표 7〉 전체장서(대출대상자료) 대출빈도/장서수 비율(단위 %)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1회이상 | 20.18 | 58.47 | 37.56 | 49.07 | 38.60 | 42.07 | 23.37 | 55.48 | 50.83 | 41.55 | 44.50 |
| 2회이상 | 15.53 | 47.40 | 28.04 | 39.89 | 30.19 | 33.68 | 18.03 | 45.42 | 41.59 | 34.13 | 35.94 |
| 3회이상 | 11.54 | 35.66 | 20.77 | 30.64 | 23.75 | 25.07 | 14.22 | 35.40 | 32.62 | 26.51 | 27.71 |

22개월동안의 대출대상자료 128,773책중 적어도 1회이상 대출된 도서는 57,310책으로 41.71%, 적어도 2회이상 대출된 도서는 33.39%인 46,290책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는 3회이상의 대출도서는 25.62%인 35,694책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철학분야가 8,286책중 적어도 1회이상 대출되어 가장 장서활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술(55.48%) 문학(50.83%) 사회과학(49.07%)이 각각 50%를 넘어 높은 장서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총류나 응용과학분야는 각각 20.18%, 23.37%로 낮게 나타나 장서활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3회이

상 대출된 도서에 대해서는 철학(35.66%) 사회과학(30.64%) 예술(35.4%) 문학(32.62%) 분야가 30%이상의 장서활용율을 보여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학교도서관도 3회이상 대출된 도서가 전체대출도서의 62.28%를 차지해 이용되었던 도서가 또다시 이용된다는 앞서의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체장서의 25.62%(3회이상 대출책수의 비율)가 전체이용(총대출 191,998책)의 81.41%를 만족시켜 80/20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동양서 대출빈도수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1회이상 | 1,820 | 4,599 | 1,224 | 12,764 | 3,642 | 4,473 | 1,938 | 6,276 | 13,595 | 3,894 | 54,225 |
| 2회이상 | 1,409 | 3,798 | 917 | 10,532 | 2,931 | 3,680 | 1,504 | 5,178 | 11,174 | 3,226 | 44,349 |
| 3회이상 | 1,053 | 2,875 | 681 | 8,187 | 2,297 | 2,852 | 1,187 | 4,072 | 8,788 | 2,520 | 34,512 |

〈표 9〉 동양서 주제별 대출빈도/장서수 비율(단위 %)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1회이상 | 21.72 | 66.48 | 39.44 | 56.00 | 47.10 | 61.62 | 28.65 | 62.54 | 59.72 | 46.02 | 52.03 |
| 2회이상 | 16.81 | 54.90 | 29.55 | 46.20 | 37.90 | 50.70 | 20.23 | 51.60 | 49.09 | 38.13 | 42.56 |
| 3회이상 | 12.56 | 41.56 | 21.94 | 35.91 | 29.70 | 39.29 | 17.54 | 40.57 | 38.60 | 29.78 | 33.12 |

동양서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철학이 6,917책중 4,599책이 적어도 1회이상 대출되어 66.48%의 장서활용율을 보였고 예술(10,035책중 6,276책이 1회이상 대출되어 62.54%) 순수과학(7,258책중 4,473책이 1회이상 대출되어 61.62%) 문학(22,762책중 13,595책이 1회이상 대출되어 59.72%)순으로 높은 장서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총류(21.72%) 응용과학(28.65%)은 전체 대출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은 장서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 서양서 대출빈도수

| 구 분 | 총 류 | 철 학 | 종 교 | 사회과학 | 어 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 술 | 문 학 | 역 사 | 계 |
|------|-----|-----|-----|------|-----|------|------|-----|-----|-----|-------|
| 1회이상 | 46 | 246 | 11 | 949 | 369 | 799 | 27 | 333 | 191 | 114 | 3,085 |
| 2회이상 | 27 | 130 | 5 | 617 | 206 | 540 | 12 | 233 | 105 | 66 | 1,941 |
| 3회이상 | 14 | 80 | 2 | 375 | 171 | 290 | 9 | 145 | 59 | 37 | 1,182 |

〈표 11〉 서양서 주제별 대출빈도/장서수 비율(단위 %)

| 구분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과학 | 어학 | 순수과학 | 응용과학 | 예술 | 문학 | 역사 | 계 |
|------|------|-------|------|-------|-------|-------|------|-------|------|------|-------|
| 1회이상 | 5.31 | 17.97 | 5.94 | 18.42 | 13.87 | 15.13 | 1.64 | 17.74 | 4.38 | 9.62 | 12.55 |
| 2회이상 | 3.12 | 9.49 | 2.70 | 11.98 | 7.74 | 10.22 | 0.73 | 12.41 | 2.40 | 5.57 | 7.90 |
| 3회이상 | 1.61 | 5.84 | 1.08 | 7.28 | 6.43 | 5.49 | 0.54 | 7.72 | 1.35 | 3.12 | 4.81 |

서양서는 사회과학이 5,150책중 949책이 적어도 1회이상 대출되어 18.42%의 장서활용율을 보였으며 철학이 1,369책중 246책이 1회이상 대출되어 17.97%의 장서활용율을 보였고 예술이 1,877책중 333책이 1회이상 대출되어 17.74%의 장서활용율을 보였으며 순수과학(15.13%) 어학(13.87%)의 장서활용율을 보였으며 이외의 주제에 있어서는 10%미만의 장서이용율을 보였다. 특히 응용과학분야는 1,643책중 27책만이 1회이상 대출되어 극히 저조한 장서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양서 전체적으로도 24,570책중 1회이상 대출된 도서는 3,085책으로 12.55%라는 낮은 장서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양서의 대부분이 교수추천에 의해 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취볼때 서양서의 장서이용율이 이처럼 낮게 나타나는데는

- ① 도서입수의 지연
- ② 도서추천에 비해 저조한 입수율
- ③ 교수의 도서관이용 기피
- ④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등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교수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서정책의 부재도 지적될 수 있으며 자료선택에 있어 교수추천에 의한 도서의 구입비율을 낮추고 권위있는 서평지 또는 BCL 등 권장도서목록을 도서선택도구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결 론

특정도서관에 대한 자체평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스스로의 평가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문제점 발견시의 책임론등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심하면 인책론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평가결과는 주로 개인의 연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도서관자체의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도 책임론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도서관서비스의 질적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서관의 발전이나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양적확충에만 급급한 자세에서 벗어나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평가는 도서관장이나 도서관관리자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간의 일회성의 평가보다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도서관의 경우는 장서보존공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 공간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서관의 신축이나 확장이전에는 많은 예산과 장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장서평가를 바탕으로 밀집보존이나 폐기정책을 수립하므로써 보존공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학교 장서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대출대상도서에 대한 장서이용율은 전체적으로는 1회이상 대출이 44.52%, 2회이상 대출이 35.94% 3회이상 대출이 27.71%로 나타났다. 동양서는 1회이상 대출이 52.03%, 2회이상 대출된 도서는 42.56%, 3회이상 대출된 도서는 33.12%로 나타나 조사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장서이용율은 높게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철학 순수과학 예술 문학이 60%를 웃도는 장서이용율을 보였으며 이중 철학분야가 가장 높은 장서이용율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학교가 교육관련 종합대학으로서 전학과에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과학은 해당학과의 이용이 집중되고 있으며 예술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와 관련 학과(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의 이용이 많았으며 문학은 전학과에 걸쳐서 고루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처럼 장서이용이 높은 데는 개설된 학과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서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한 장서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제별 장서이용율은 동양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회과학분야의 장서이용이 그중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학관련 도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서가 특히 낮은 장서이용율을 보인 것

에 대해 도서관은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제시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작업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대략적인 장서이용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며 특히 대출시스템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워 주제별 장서의 강 약점, 별무이용도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였다. 특정주제(예로 우리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학관련등)의 강약점 분석, 대출이 과다발생하는 도서의 유형분석이나 별무이용도서의 분석은 나중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참 고 문 헌

- Lancaster, F. W. 저. 장혜란 역. 도서관서비스평가론, 서울 : 구미무역(주), 1990
- 송영희 등. 장서개발론, 서울 : 구미무역(주) 1992.
- 양병훈. "대학도서관장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구자춘. "대학도서관장서의 별무이용도서 원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 이은철. "대학도서관 장서의 폐기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9.
- 유재욱. "장서평가에 관한 소고 : 특히 이용조사를 중심으로", 도서관학, 제15집 (1988), pp 175-195.
- 유소영. "연구도서관 장서의 양적 질적 평가에 관한 분석적 고찰", 도서관학, 제8집 (1981), pp 233-263.